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8-10절>

1.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나 욥기 23장 8-9 절의 욥의 절실한 고백을 실감하면서 그럼에도 다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어줄 믿음의 다리 건너기를 다짐합니다. 이 다리 건너기 전까지 우리는 무던히도 이 세상에서 연단 받고 단련되어야 합니다. 동띠모르 땅, 선교현장에서 만나는 현지인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내 비치는 기대는 거기까지 **“함께 건너가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Family-ship)’이 되기 원합니다. 초대하고 방문하며 만나는 동띠모르 현지인, 그들은 한 가족입니다.

2. **“하나님, 에벤에셀 은혜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차가 진입하는 도로도 없고 전기도 없는 바뚜보루 와우뿌마을의 <메트로초등학교>가 잘 자리 잡아 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산속에 갇혀 지내는 듯한 이 어린이들에게도 세계와 세상을 보는 꿈과 미래의 비전을 주소서.(사진 1,2)

(2) 코비드 19의 팬데믹 상황 아래 식량 조달이 힘들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베르마누레우(Bermanuleu)마을과 호호라우(Hoholau)마을에 교회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게 되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가족 된 교회의 협력과 동행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소서. 지속적인 후원으로 베르마누레우마을 <에일유치원> 아이들의 성장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며 교육을 통해 더 명철을 얻게 하소서.(사진 3)

(3) 통일대교회와 형제들의 후원으로 에스더비전센터 안에 <비전교육장>이 잘 마련되어 감사드립니다. 더 아름답게 센터 친구들과 지역의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한국어 및 외국어 그리고 컴퓨터와 악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인데, 센터 주제곡 <돈으로도 못가요 하나님나라>가 이미 한국어를 배운 지역의 아이들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이 창을 통해 아이들이 더 넓게 더 멀리 세계와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사진 4,5)

(4) 12월에 출산을 기다리는 자립형 <쉐어링돼지농장>의 돼지들이 건강하게 출산되기를 바랍니다.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화하는 계절에 지장 없이 건강하게 출산하여 잘 성장해 주기를 바랍니다. 관리자의 성실과 지해도 특별히 더 요청됩니다. 12월 은혜의 선물인 귀한 돼지들의 울음소리로 이 농장에 일이 더 많이 바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사진 6)

(5) 코비드 19, 팬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혀 이 선교현장에 꼼짝 못하고 있지만 지금

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선교사역을 지속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의 삶과 그 삶의 자리,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지켜 주시기를 이곳 동티모르에서 소망을 담고 기도드립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세 자녀(진유, 광현, 소현)의 삶 속에서도 에벤에셀 은혜로 지켜 주옵소서.

2020. 11. 22.

동티모르 선교사 이대훈, 김차순



1



2



3



4



5



6



이대훈 김차순 선교사

* 카톡아이디 / lovetimorjamiss

* 밴드 / 이대훈과 김차순의 동피모르 선교이야기